

## 어머니의 직무만족도가 양육스트레스, 부부갈등에 미치는 영향: 심리적 특성의 매개효과

연은모\*    최효식\*\*

Mediating Effects of Psychological Features in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an Infant-Mother's Job Satisfaction,  
Parenting Stress, and Marital Conflict

Yeon, Eun Mo    Choi, Hyo Sik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직무만족도, 심리적 특성, 양육스트레스, 부부갈등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구조방정식 분석을 활용하여 어머니의 직무만족도가 양육스트레스와 부부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심리적 특성(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우울)이 매개 역할을 하는지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 아동패널 3차년도 자료 중, 취업 중인 어머니 444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어머니의 직무만족도는 심리적 특성인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과는 정적 상관관계, 우울과 부적 상관관계, 결혼생활 관련 변인인 양육스트레스, 부부갈등과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둘째, 어머니의 직무만족도는 양육스트레스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어머니의 직무만족도는 부부갈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직무만족도가 양육스트레스와 부부갈등에 미치는 영향을 대체로 심리적 특성이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양육스트레스와 부부갈등 분야에서의 본 연구의 의의와 가족 상담 과정에서의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 주제어 : 어머니, 직무만족도, 심리적 특성, 양육스트레스, 부부갈등

\* 제 1저자: 서울대학교 학습창의센터 전임연구원(rain4515@snu.ac.kr)

\*\* 교신저자: 송원대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hyosikchoi@songwon.ac.kr)

## I. 서론

개인이 소망하던 바와 실제 성취를 비교하며 현재를 얼마나 만족스럽게 여기는지를 평가하는 주관적인 인지 과정인 만족도(Shin & Johnson, 1978)는 자신이 처한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가영희, 2006). 자신이 처한 환경이 자신을 존중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등 자신이 바라던 바와 일치할수록 행복감과 즐거움을 느끼는 등의 긍정적인 정서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의 삶에 대한 만족도를 고려함에 있어 개인이 경험하는 환경에 대한 고려는 필수적이다.

20세기 초부터 여성의 경제활동 진출이 꾸준히 증가해 2005년도에는 학령기 자녀를 두고 일을 하는 어머니가 75%에 다다른 것으로 나타났으며(Cohany & Sok, 2007), 2014년 통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혼 여성의 경우에도 51.9%에 다다른다(통계청, 2014). 이런 사회적인 변화는 여성들의 삶의 만족도 역시 삶의 주 공간이 되어버린 직업 현장에서의 만족도와 높은 관련성을 보일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최근 Goodman과 Crouter의 연구(2009)에 따르면 사회생활을 하는 여성의 경우 직업에 대한 스트레스로 삶의 만족도가 저하되어 높은 무기력을 보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기혼 여성의 경우에는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가정의 행복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Ford, Heinen, & Langkamer, 2007). 많은 연구에서 사회생활을 하는 어머니의 경우 직업에 대한 중압감이 어머니로서의 역할갈등과 어머니와 자녀 간 일상생활의 문제를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Demerouti, Bakker, & Bulters, 2004; Demerouti, Bakker, & Schaufeli, 2005). 또한, 직업을 가진 기혼 여성의 경우 가정 안팎의 일에 대한 부담감으로 배우자와도 잦은 갈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확인되는데(Kim & Ling, 2001), 선행연구들은 이와 같은 가정에서의 문제들이 다시금 직업에도 큰 위협이 될 수 있음을 보고한다(Demerouti, Bakker, & Bulters, 2004; Ford et al., 2007). 따라서 어머니의 직업에 대한 낮은 만족도는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보다 높은 스트레스를 지각하게 하고 부부갈등을 빈번하게 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을 예측해볼 수 있다.

그러나 개인의 직업에 대한 만족도, 즉 자신이 처한 환경에 대한 정서가 결혼생활을 유지하는데 미치는 영향에 있어 삶의 주체인 개인의 심리적인 영향 역시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가령, 증가된 직무 관련 스트레스는 우울과 분노와 같은 심리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며(Bodenmann, Ledermann, & Bradbury, 2007), 직무 관련 변인들은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우울 등을 매개로 결혼만족도, 부부갈등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Fraenkel & Capstick, 2012). 부모 역할 유능감은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지만(Williams, Joy, Travis, Gotowiec, Blum-Steele, Aiken, Painter, & Davidson, 1987), 유능감에 대한 욕구는 직무 과정에서 받게 되는 피드백 등을 통해 더 쉽게 채워질 수 있다. 따라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이 느끼는 지각은 개인의 유능감뿐 아니라 삶의 전반적인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이다(Nelson & Lyubomirsky, in press).

하지만 그동안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부부갈등과 관련된 연구들이 주로 결혼만족도, 아버지의 양육 협조 등과 같은 가정 내 변인에 집중하여 어머니의 직무만족도와 같은 직업 변인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다. 또한, 관련 연구들이 양육스트레스와 같은 종속변인에 대한 각 독립변인들의 단일관련성에 관심을 두어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사이를 매개하는 변인의

존재와 역할에 소홀하였다는 측면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혼 여성의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가정 내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지각하는 스트레스와 부부갈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개인의 행동을 예측하는 심리적 변인들이 이들 관계를 어떻게 매개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매개변인의 탐색 및 확인 작업을 통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부부갈등을 낮추기 위해 개인 및 사회에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어머니의 직무만족도, 심리적 특성, 양육스트레스, 부부갈등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이 직무만족도와 양육스트레스, 부부갈등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가?

## II. 이론적 배경

### 1. 기혼 여성의 직무만족도가 양육스트레스와 부부갈등에 미치는 영향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와 더불어 늘어난 맞벌이 가정의 증가는 직업을 가진 기혼 여성에게 사회생활로 인한 많은 스트레스를 제공할 뿐 아니라 자녀에게는 물론 가정 전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남성의 가사활동 분담 및 부모역할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는 추세이다(McBride, Schoppe, & Rane, 2002). 그러나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최근의 연구결과들(차삼숙, 신유림, 2005; Raikes & Thompson, 2005; Respler-Herman, Mowder, Yasik, & Shamah, 2012)은 기혼 여성이 사회와 가정 모두에서 높은 심리적 부담을 느끼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기혼 여성의 경우 일에 대한 압박이 커질수록 어머니로서의 역할에 대한 부담도 가중되면서 부모와 자녀 간 심리적 안정과 관련하여 더 많은 갈등을 경험한다. 특히, Crouter, Bumpus, Maguire와 McHale(1999)의 연구에 따르면, 아버지의 경우 일에 대한 스트레스가 아버지의 역할에 대한 부담과 어머니의 역할에 대한 부담을 동시에 예측할 수 있는 요인으로 확인되었지만, 이와 달리 어머니는 일에 대한 압력과 스트레스를 배우자와 공유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기혼 여성이 사회생활에서 느끼는 스트레스와 심리적 어려움은 부모와 자녀 간 상호작용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직업을 가진 어머니의 경우 직장에서 업무의 양이 늘어나거나 상사와 동료 간 상호작용에서 피로운 감정을 경험한 후에는 아이를 대하는 행동에 있어 행동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철수(withdrawal)가 발생하게 된다(Wang, Repetti, & Campos, 2011). 즉, 직장에서의 스트레스가 그대로 자녀와의 상호작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남주현, 2003; 노진아, 이숙, 2002).

또한, 직업을 가진 기혼 여성의 스트레스는 자녀와의 상호작용뿐 아니라 배우자와의 관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가령, 직장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돌아온 경우 사회생활을 통한 심리적 소진이 많이 발생해 가정으로 돌아와 가족들과의 접촉을 피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Demerouti, Bakker, & Bulters, 2004). 또한, 남편과 아내의 경우 모두 서로의 직장에서의 긍정적 경험, 부정적 경험들이 집으로 돌아온 이후 상대방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궁극적으로는 가정 내 역할에 충실하지 않은 것으로 지각하게 만들어 배우자에 대한 불만이 쌓이게 하고 갈등을 유발하게 되는 것이다(이규만, 김용훈, 2007).

## 2. 기혼 여성의 심리적 특성과 직무만족도, 양육스트레스, 부부갈등 간의 관계

기혼 여성이 경험하는 가정 내 여러 문제에 대한 스트레스가 어머니의 개인적인 특성보다 배우자의 양육참여나 정서적 지원(김기원, 도현심, 김상원, 이선희, 2010), 그리고 직장을 가진 여성의 경우에는 대리양육시간, 초과근무시간, 양육비부담과 같은 직무환경 특성(김선순, 2006; Martins, Eddleston, & Veiga, 2002) 등의 환경적인 특성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연구들이 존재하지만, 전통적으로 심리학적 관점에서 개인의 심리적 특성은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동기를 부여하고 행동 및 정서를 예측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Motowidlo & Van, 1994).

주어진 일을 성공적으로 해낼 것이라는 개인의 신념을 나타내는 자기효능감(Bandura, 1986)은 직면한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모습을 촉진한다(Bradley & Roberts, 2004). 선행연구에 따르면, 높은 자기효능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어려운 상황에서 긍정적이며 실패 상황에서도 더 노력하며 높은 회복 탄력성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 것으로 확인된다(황해익, 탁정화, 홍성희, 2013; Jackson, 2000; Speight, 2010). 특히, 직업을 가진 기혼 여성의 경우 직무만족도는 자기효능감과 높은 관련성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된다(Judge & Bono, 2001). 사회생활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대한 성공적인 경험들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긍정적으로 예측하며, 가정 내 자신의 역할도 성공적으로 수행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하여 가정 내 역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서주현, 김진경, 2012; 안지영, 2003; 허혜경, 김민정, 2012; Kuhn & Carter, 2006).

뿐만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고 가치 있는 사람으로 지각하도록 도와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알려진 자아존중감 역시 양육스트레스와 부부간의 원만한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다(정주영, 2013; Mulsow, Caldera, Pursley, Reifman, & Huston, 2002). 자기일치이론에 따르면 높은 자아존중감을 가진 사람은 적절하고 만족감을 유발하는 자기이미지(self-image)를 가지고, 낮은 자아존중감을 가진 사람은 계속된 실패로 인해 만족을 유발할 수 없는 부적절한 자기이미지를 가지게 된다(Judge & Bono, 2001; Korman, 1970). 관련 선행연구들(Judge & Bono, 2001; Mulsow et al., 2002) 역시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양육에 대한 어머니의 스트레스가 낮아지며(Kuster, Orth, & Meier, 2013) 친사회적인 행동을 가질 마음의 여유를 갖게 함으로써 부부간의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고한다(신동주, 최현미, 2011). 이러한 자아존중감은 자신이 속한 환경에서의 유능감 지각에 많은 영향을 받는데(Kuster et al., 2013), 직장생활을 하는 기혼 여성의 경우 주어진 업무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기에 적절하고 흥미가 높을수록 유능감을 느끼고 자기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지각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이진희, 2011). 특히, 취업을 한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이 높고(Birnbaum, 1975) 일반직 종사자보다 전문직 종사자

의 자아존중감이 높다(김인숙, 김병숙, 2002)는 기존의 연구들을 고려해 볼 때, 직장생활이 가정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기혼 여성이 지각하고 있는 자아존중감 수준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예상해 볼 수 있다.

반면, 상실감을 바탕으로 무기력한 상태를 호소하는 개인의 우울감(Beck, 1967)은 직면한 과제 수행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와 같은 개인의 부정적 심리상태는 그동안 선행연구에서도 자녀 양육의 질을 저하시키고 부부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등 부정적인 영향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Bakker, Demerouti, & Dollard, 2008; Song, Foo, Uy, & Sun, 2011). 보다 구체적으로, 어머니의 우울은 자녀에게 적대감을 유발시켜 자녀와의 상호작용을 악화시키고(이윤주, 김진숙, 2012) 부모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조그만 실수에도 더 큰 부담감을 지각하게 만들어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정운, 장미경, 2008). 더불어, 불안과 우울 등의 불안정한 심리상태는 서로 다른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지닌 부부의 단점을 더 크게 부각시켜(Obidoo, Reeves, Warren, Reisine, & Cherniack, 2011) 갈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직업을 가진 기혼 여성의 경우 개인의 특성적인 우울감 외에도 삶의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직업에서의 만족도에 의해 발생하는 우울감이 가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직무만족도가 낮을수록 더 높은 양육스트레스와 부부갈등을 경험할 수 있다(김은정, 오경자, 하은혜, 1999; Geurts & Demerouti, 2003).

### Ⅲ.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수집한 한국아동패널을 사용하였다. 한국아동패널은 2008년 4월부터 7월까지 전국에서 표집된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신생아를 대상으로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시점인 2015년까지 매해 실시되며, 이후 2017년과 2020년 두 차례에 걸쳐 추적조사가 실시되는 연구자료이다. 본 연구에서는 취업모의 직무만족도, 심리적 특성, 양육스트레스, 부부갈등 간의 인과적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아동패널 3차년도인 2010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10년 자료 중 취업 중인 어머니만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으며, 관찰 변인들의 결측치가 있는 경우 이를 완전제거(listwise) 방식으로 제거하였다. 최종적으로 444명의 자료가 분석에 포함되었다. 분석 대상인 어머니의 연령은 만 32.83세( $SD=3.49$ )이며, 현 결혼 상태 유지 기간(년)은 5.14년( $SD=2.87$ ), 자녀의 연령은 만 25.93개월( $SD=1.41$ )이었다.

#### 2. 측정도구

##### 1) 결혼만족도

결혼생활 전반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RKMSS(Revised-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 Chung, 2004)의 4개 문항을 활용하였으며, Likert 5점 척도(매우 불만족=1, 매

우 만족=5)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은 ‘귀하는 배우자로서의 남편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귀하는 결혼생활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내적일관성 신뢰도는  $\alpha=.92$ 로 나타났다.

## 2) 심리적 특성: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우울

어머니의 자기효능감은 Pearlin, Lieberman, Menaghan과 Mullan(1981)의 자기효능감 척도(The Pearlin Self-Efficacy Scale)를 활용하였다. 총 4문항이며, Likert 5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1, 매우 그렇다=5)로 구성되어 있다. 역점수로 환산한 평균점수를 활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자기효능감을 의미한다. 문항은 ‘내가 가진 문제들 중 몇몇 문제는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다.’ ‘삶의 문제들을 내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것 같다고 자주 느낀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기효능감 척도의 내적일관성 신뢰도는  $\alpha=.83$ 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은 Rogenberg(1986)의 자아존중감 척도를 활용하였다. 총 10문항이며, Likert 4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1, 매우 그렇다=4)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의미한다. 문항은 ‘내가 적어도 다른 사람만큼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가끔씩 내가 쓸모없다고 느낀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아존중감 척도의 내적일관성 신뢰도는  $\alpha=.87$ 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부정적 심리적 특성인 우울은 Kessler(2002)의 K6 척도를 활용하였다. 총 6문항이며, Likert 5점 척도(전혀 안 느낌=1, 항상 느낌=5)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문항은 ‘지난 30일 동안 무기력하셨습니까?’, ‘지난 30일 동안 매사에 힘이 드셨습니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우울 척도의 내적일관성 신뢰도는  $\alpha=.91$ 로 나타났다.

## 3) 양육스트레스

양육스트레스는 김기현과 강희경(1997)이 개발한 척도를 활용하였으며,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와 관련된 11개 문항, Likert 5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1, 매우 그렇다=5)로 측정하였다. 응답 가능한 점수 범위는 11~5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응답자의 양육과정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양육스트레스 문항은 ‘아이를 낳은 후 예전만큼 나의 생활이 즐겁지 않다’, ‘피곤할 때 아이가 놀아달라고 보채면 귀찮은 생각이 든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양육스트레스 척도의 내적일관성 신뢰도는  $\alpha=.86$ 로 나타났다.

## 4) 부부갈등

부부갈등은 Markman, Stanley와 Blumberg(1994)의 부부갈등 척도를 정현숙(2004)이 수정한 척도를 활용하였으며, 어머니가 느끼는 갈등의 정도를 8개 문항, Likert 5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1, 매우 그렇다=5)로 측정하였다. 응답 가능한 점수 범위는 8~4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갈등이 많음을 의미한다. 문항은 ‘남편은 내 생각과 말을 내가 의도한 것보다도 더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남편은 나를 존중하지 않는 것 같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부부갈등 척도의 내적일관성 신뢰도는  $\alpha=.92$ 로 나타났다.

###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분석 자료는 통계 프로그램인 SPSS 20.0과 AMOS 20.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어머니의 직무만족도, 심리적 특성, 양육스트레스, 부부갈등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구조모형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모형의 계수 추정 방법은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ML)을 사용하였다. 구조모형분석은 측정모형 검증과 구조모형 검증의 2단계를 통해 실시하였다(Anderson & Gerbing, 1988). 각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표본크기의 영향에 민감한  $\chi^2$  대신(Hoyle & Panter, 1995) 적합도 지수를 활용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표본크기에 민감하지 않고, 간명도를 고려하며, 해석기준이 확립되어 있는 TLI, CFI, RMSEA 적합도 지수를 활용하였다(유성경, 홍세희, 이아라, 2006; 홍세희, 2000). 그리고 측정모형을 추정하는 과정에서 각 잠재변인별로 추정해야 할 모수가 지나치게 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항묶기(item parceling)를 실시하였다. 문항묶기란 동일한 잠재변인을 측정하는 일차원적인 측정변인들을 무선적으로 묶어서 총점이나 평균값을 사용하는 것이다. 문항묶기는 개별 문항에 비해 더 정규분포성의 특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최대우도법과 같은 계수 추정 방식을 사용할 때 장점을 가질 수 있다(Little, Cunningham, Shahar, & Widaman, 2002). 본 연구에서는 잠재변인에 대한 1요인 지정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각 묶음 점수의 요인계수가 동일해지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Russell, Kahn, Spoth, & Altmaier, 1998).

## IV. 결과 및 해석

### 1. 어머니의 직무만족도, 심리적 특성, 양육스트레스, 부부갈등 간 관계

본 연구의 주요 변인인 직무만족도, 심리적 특성, 양육스트레스, 부부갈등의 기술통계는 <표 1>과 같다. 본 연구 참가자들은 5점 척도로 측정된 직무만족도, 자기효능감은 3.5 이상의 상대적으로 높은 평균값을 보였으며, 4점 척도로 측정된 자아존중감은 3.05의 평균값을 보여 높은 자아존중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점 척도로 측정된 우울은 1.92, 부부갈등은 2.13의 평균값을 보여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양육스트레스는 2.72의 평균값을 보여 평균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1> 직무만족도, 심리적 특성, 양육스트레스, 부부갈등의 기술통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직무만족도	직무만족도1	3.62	.62	2.00	5.00
	직무만족도2	3.66	.64	1.33	5.00
	직무만족도3	3.67	.60	2.00	5.00
	전체	3.65	.58	2.00	5.00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1	3.34	.94	1.00	5.00
	자기효능감2	3.51	.90	1.00	5.00
	자기효능감3	4.03	.69	2.00	5.00
	자기효능감4	3.86	.85	1.00	5.00
	전체	3.68	.68	1.50	5.00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1	2.95	.42	1.50	4.00
	자아존중감2	3.11	.44	1.67	4.00
	자아존중감3	3.14	.43	1.67	4.00
	전체	3.05	.39	1.80	4.00
우울	우울1	2.06	.80	1.00	4.50
	우울2	1.78	.68	1.00	4.00
	우울3	1.92	.77	1.00	5.00
	전체	1.92	.70	1.00	4.17
양육스트레스	양육스트레스1	3.06	.68	1.00	4.75
	양육스트레스2	2.66	.65	1.00	5.00
	양육스트레스3	2.37	.71	1.00	5.00
	전체	2.72	.60	1.00	4.82
부부갈등	부부갈등1	2.27	.88	1.00	5.00
	부부갈등2	2.07	.82	1.00	5.00
	부부갈등3	2.00	.84	1.00	5.00
	전체	2.13	.79	1.00	5.00

직무만족도, 심리적 특성, 양육스트레스, 부부갈등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상관분석 결과는 <표 2>와 같다. 먼저, 직무만족도는 심리적 특성인 자기효능감과는 .14, 자아존중감과는 .24의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난 반면, 직무만족도와 우울 간에는 -.19의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그리고 직무만족도는 양육스트레스와는 -.20, 부부갈등과는 -.24의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그리고 자기효능감은 양육스트레스와 -.40, 부부갈등과 -.43, 자아존중감은 양육스트레스와 -.52, 부부갈등과 -.48의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난 반면, 우울은 양육스트레스와 .49, 부부갈등과 .45의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 2. 어머니의 직무만족도, 심리적 특성, 양육스트레스, 부부갈등 간 구조모형분석 결과

### 1) 측정모형 검증

측정변인들이 잠재변인을 적절하게 측정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측정모형(measurement model) 검증을 실시하였다. 직무만족도,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우울, 양육스트레스, 부부갈등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모형의 적합도는  $\chi^2(df=137, N=444)=308.11, p<.001, TLI=.97, CFI=.97, RMSEA=.05$ 으로 좋은 양호도를 보였다(Hu & Bentler, 1999).



<표 2> 측정변인의 상관관계

1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1																									
2	.79**	1																							
3	.81**	.83**	1																						
4	.94**	.93**	.93**	1																					
5	.06	.07	.09*	.08	1																				
6	.10*	.14**	.13**	.13**	.13**	1																			
7	.08	.11*	.11*	.11*	.40**	.56**	1																		
8	.10*	.13**	.13**	.12**	.42**	.58**	.70**	1																	
9	.11*	.14**	.14**	.14**	.77**	.85**	.80**	.82**	1																
10	.21**	.24**	.22**	.24**	.31**	.45**	.43**	.45**	.50**	1															
11	.15**	.18**	.18**	.18**	.16**	.27**	.30**	.36**	.33**	.69**	1														
12	.20**	.23**	.24**	.24**	.20**	.38**	.40**	.43**	.43**	.78**	.78**	1													
13	.21**	.24**	.23**	.24**	.25**	.41**	.42**	.45**	.47**	.92**	.89**	.93**	1												
14	-.16**	-.18**	-.20**	-.19**	-.34**	-.47**	-.32**	-.36**	-.47**	-.43**	-.43**	-.46**	-.46**	1											
15	-.17**	-.21**	-.20**	-.21**	-.36**	-.50**	-.39**	-.44**	-.52**	-.55**	-.45**	-.53**	-.57**	.82**	1										
16	-.12*	-.14**	-.16**	-.15**	-.35**	-.50**	-.37**	-.38**	-.50**	-.45**	-.46**	-.42**	-.46**	.84**	.82**	1									
17	-.16**	-.19**	-.20**	-.19**	-.37**	-.52**	-.38**	-.42**	-.53**	-.42**	-.50**	-.50**	-.52**	.95**	.93**	.95**	1								
18	-.16**	-.16**	-.16**	-.17**	-.25**	-.39**	-.24**	-.25**	-.36**	-.44**	-.40**	-.44**	-.44**	.39**	.38**	.35**	.40**	1							
19	-.18**	-.16**	-.17**	-.18**	-.28**	-.39**	-.25**	-.25**	-.36**	-.45**	-.37**	-.47**	-.47**	.47**	.44**	.41**	.47**	.67**	1						
20	-.18**	-.17**	-.18**	-.19**	-.19**	-.38**	-.25**	-.24**	-.33**	-.45**	-.36**	-.46**	-.47**	.43**	.42**	.38**	.44**	.63**	.74**	1					
21	-.19**	-.19**	-.19**	-.20**	-.28**	-.44**	-.28**	-.28**	-.40**	-.51**	-.41**	-.50**	-.52**	.49**	.46**	.43**	.49**	.88**	.91**	.88**	1				
22	-.18**	-.19**	-.17**	-.20**	-.31**	-.39**	-.29**	-.31**	-.41**	-.44**	-.37**	-.41**	-.45**	.39**	.42**	.38**	.42**	.31**	.39**	.39**	.41**	1			
23	-.23**	-.26**	-.23**	-.25**	-.31**	-.41**	-.34**	-.36**	-.44**	-.47**	-.37**	-.45**	-.47**	.40**	.46**	.40**	.45**	.30**	.36**	.41**	.40**	.81**	1		
24	-.19**	-.21**	-.20**	-.21**	-.27**	-.32**	-.27**	-.28**	-.40**	-.47**	-.34**	-.42**	-.43**	.34**	.42**	.35**	.39**	.29**	.35**	.39**	.38**	.78**	.83**	1	
25	-.22**	-.23**	-.21**	-.24**	-.32**	-.41**	-.32**	-.34**	-.43**	-.47**	-.39**	-.46**	-.48**	.41**	.47**	.41**	.45**	.32**	.39**	.42**	.42**	.94**	.95**	.91**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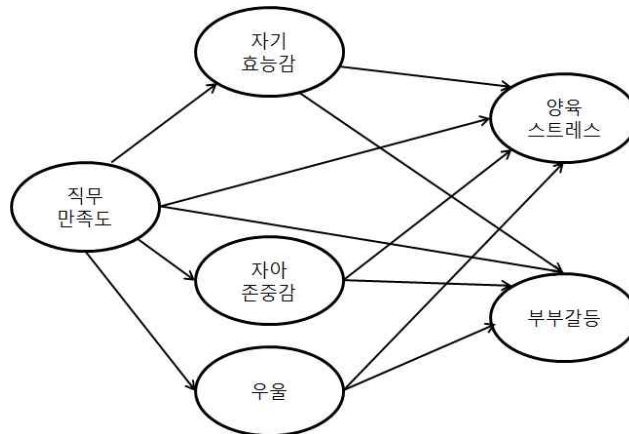
\*p<.05, \*\*p<.01; 주: 측정변인은 문항류기(item parceling)를 한 결과를 제시함

1: 직무만족도1, 2: 직무만족도2, 3: 직무만족도3, 4: 직무만족도 전체, 5: 자기효능감1, 6: 자기효능감2, 7: 자기효능감3, 8: 자기효능감4, 9: 자기효능감 전체, 10: 자아존중감1, 11: 자아존중감2, 12: 자아존중감3, 13: 자아존중감 전체, 14: 우울1, 15: 우울2, 16: 우울3, 17: 우울 전체, 18: 양육스트레스1, 19: 양육스트레스2, 20: 양육스트레스3, 21: 양육스트레스 전체, 22: 부부갈등1, 23: 부부갈등2, 24: 부부갈등3, 25: 부부갈등 전체

구조방정식 모형을 검증할 때 집중타당도와 판별타당도를 확보하는 것은 중요하다. 집중타당도를 살펴보면, 먼저 모든 요인부하량이 기준치인 .50(Hair, Black, Babin, Anderson, & Tatham, 2006) 보다 높은 .59 이상(.59~.94)으로 나타났으며, 평균분산추출(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값이 기준치인 .50보다 높은 .70 이상(.79~.94), 개념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 C.R.)값이 기준치인 .70보다 높은 .90 이상(.94~.98)으로 나타나(Bagozzi & Yi, 1988) 집중타당도가 확보되었다. 모든 잠재요인 간 상관계수 제공값(.03~.35)이 AVE값보다 작게 나타나 판별타당도가 검증되었다(Fornell & Larcker, 1981).

2) 구조모형 검증

직무만족도, 심리적 특성, 양육스트레스, 부부갈등 간의 인과적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그림 1] 과 같은 모형을 설정한 다음, 구조모형(structural model) 분석을 실시하였다. 즉, 19개의 관찰변인과 6개의 잠재변인으로 이루어진 구조적 관계가 연구모형으로서 설정되었다. 분석 결과 모형의 적합도는  $\chi^2(df=141, N=444)=605.18, p<.001, TLI .91, CFI .93, RMSEA .09$ 로 양호하다고 판단되는 권고수준으로 나타났다(Chau, 1996; Hu & Bentler, 1999; Taylor & Todd, 1995). 또한, 다중상관값(squared multiple correlation)을 확인한 결과, 연구모형은 양육스트레스 변량의 31%, 부부갈등 변량의 27%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 연구모형

연구모형의 모수추정치는 <표 3>과 같다. 경로계수를 보면 직무만족도는 자기효능감( $\beta=.18$ )과 자아존중감( $\beta=.28$ )에는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우울( $\beta=-.23$ )에는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만족도는 양육스트레스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부부갈등( $\beta=-.11$ )에는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은 양육스트레스( $\beta=-.09$ )와 부부갈등( $\beta=-.22$ )에 부적인 영향, 자아존중감도 양육스트레스( $\beta=-.40$ )와 부부갈등( $\beta=-.31$ )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우울은 양육스트레스( $\beta=.33$ )와 부부갈등( $\beta=.23$ )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연구모형 경로계수

경로	비표준화 계수(b)	표준오차	t	표준화 계수(β)
직무만족도→자기효능감	.18	.05	3.31***	.18
직무만족도→자아존중감	.18	.03	5.56***	.28
직무만족도→우울	-.31	.07	-4.56***	-.23
직무만족도→양육스트레스	-.04	.04	-1.02	-.05
자기효능감→양육스트레스	-.08	.04	-1.80	-.09
자아존중감→양육스트레스	-.53	.07	-7.48***	-.40
우울→양육스트레스	.21	.03	6.61***	.33
직무만족도→부부갈등	-.15	.06	-2.29*	-.11
자기효능감→부부갈등	-.28	.07	-4.22***	-.22
자아존중감→부부갈등	-.62	.10	-6.25***	-.31
우울→부부갈등	.23	.05	4.99***	.23

\*  $p < .05$ , \*\*\*  $p < .001$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붓스트랩(bootstrapping)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원자료를 사용하는 비모수 붓스트랩 방법(non-parametric bootstrapping)을 적용하였다. Mplus와 달리 AMOS를 활용할 경우 여러 개의 매개효과가 있는 모형에서 특정 경로를 통한 하나의 매개효과만을 구분하여 값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팬텀변수(phantom variable)를 활용하여 개별간접효과(specific indirect effect)를 추정하였다. 붓스트랩 방법(1000번 반복시행)을 통해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직무만족도→자기효능감→양육스트레스를 제외한 나머지 5개 매개효과는 95% 신뢰구간의 하한값과 상한값에 0을 포함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팬텀변수를 활용한 매개효과 검증

경로	비표준화 계수(b)	표준오차	95% 신뢰구간
직무만족도→자기효능감→양육스트레스	-.01	.01	-.05~.00
직무만족도→자아존중감→양육스트레스	-.10	.02	-.15~-.06
직무만족도→우울→양육스트레스	-.07	.02	-.11~-.03
직무만족도→자기효능감→부부갈등	-.05	.02	-.11~-.02
직무만족도→자아존중감→부부갈등	-.11	.03	-.18~-.06
직무만족도→우울→부부갈등	-.07	.02	-.13~-.03

마지막으로 붓스트랩 방법을 활용하여 ‘직무만족도에서 양육스트레스’의 경로, ‘직무만족도에서 부부갈등’의 경로 총효과를 검증한 결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화 경로계수를 기준으로 총효과를 살펴보았을 때, 직무만족도가 양육스트레스를 설명하는 총

효과 -.25 중 직접효과는 -.05, 간접효과는 -.20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직무만족도가 부부갈등을 설명하는 총효과 -.29 중 직접효과는 -.11, 간접효과는 -.18로 확인되었다.

## V. 논의 및 결론

가정 내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은 어머니 개인의 건강한 생활뿐 아니라 가족의 행복을 예측한다는 점(권미경, 2011; Goodman & Crouter, 2009)에서 중요하다. 특히, 최근 사회적으로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면서 취업한 기혼 여성의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직무만족도와 양육스트레스 및 부부갈등 간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 어머니의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우울 등의 심리적 특성이 직무만족도와 양육스트레스 및 부부갈등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기혼 여성의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가정 내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지각하는 스트레스와 부부갈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 개인의 행동을 예측하는 심리적 요인들이 이들의 관계를 어떻게 매개하는지에 대해 검증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직무만족도, 심리적 특성, 양육스트레스, 부부갈등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든 변인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직무만족도는 심리적 특성인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과는 정적 상관관계, 우울과는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직무만족도가 자기효능감(안지영, 2003), 자아존중감(이진희, 2011), 우울(김효정, 2011)과 관련성이 있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직무만족도는 양육스트레스, 부부갈등과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이는 양육스트레스와 부부갈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Ford et al., 2007).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인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은 양육스트레스 및 부부갈등과 부적 상관관계, 우울은 양육스트레스, 부부갈등과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이는 심리적 특성과 결혼생활의 질을 대표하는 양육스트레스, 부부갈등 간의 밀접한 관련성을 보고하고 있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서주현, 김진경, 2012; 허혜경, 김민정, 2012; Kuhn & Carter, 2006).

둘째,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이 직무만족도와 양육스트레스, 부부갈등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구조방정식을 활용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기혼 여성의 직무만족도는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직업을 가진 기혼 여성의 경우 직무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아지고 직무만족도가 낮아질수록 어머니로서의 역할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면서 더 많은 갈등을 경험한다는 기존의 선행연구들(Crouter et al., 1999; Demerouti, Bakker, & Bulters, 2004)과 달리, 본 연구결과에서는 직무만족도는 양육스트레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직장을 가진 기혼 여성들의 낮은 직무만족도에 따른 높은 양육스트레스를 확인한 많은 연구들(Thompson & Prottas, 2006)은 대부분 직장을 가진 기혼 여성과 그렇지 않은 기혼 여성을 비교한 결과로 어머니로서의 역할에 대해 더 큰 부담을 느끼고, 자녀와의 갈등이 더 많이 발생함을 시사해왔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직업을 가진 기혼 여성만을 대상으로 이들의 개인 내 특성을 중심으로 직무만족도와 양육스트레스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는 차별점이 있으며, 이와 같은 차별적인 연구 설계가 선행연구와 다

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결과는 직업을 가진 기혼 여성들의 경우 직장 생활로 인해 다양한 역할수행이 부과되어 부담이 높더라도 자신의 직업적 역할과 부모역할을 분리하여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반면, 직무만족도가 높아질수록 부부갈등은 낮아지는 직접효과가 나타났다. 이는 사회생활을 통한 심리적 소진이 부부갈등을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고 보고한 선행연구들(이규만, 김용훈, 2007; Geurts & Demerouti, 2003)과 일치한다. 만족스럽지 못한 직장 생활은 정신적, 신체적 에너지를 고갈시켜 집에 돌아와서는 배우자에게 스트레스와 직무로 인한 중압감을 전이시킨다(Grzywacz & Marks, 2000; Westman, 2001). 특히, 맞벌이를 하는 부부의 경우 직무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서로에게 전이시키게 되는데 이는 곧 각자가 느끼는 직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증가시켜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다(Demerouti, Bakker, & Bulters, 2004). 실제로 많은 연구들은 만족스럽지 못한 직장 생활이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에도 많은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다(Schabracq, Winnubst, & Cooper, 2003; Quick & Tetrick, 2003). 따라서 직무만족도가 가정 내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전이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혼 여성의 직무만족도를 높이는 다양한 개인적 및 사회적 지원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직업을 가진 기혼 여성의 직무만족도는 이들의 심리적 특성인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에는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우울에는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취업한 기혼 여성의 경우 직업적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면서 자신이 가진 능력을 확인하고 자신의 역할수행에 대한 긍정적인 믿음을 형성(안지영, 2003)하고, 자기평가를 통해 자신을 보다 가치 있는 사람으로 인식하게 된다는 연구(Judge & Bono, 2001; Korman, 1970)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무엇보다도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은 스스로에 대한 긍정적 신념을 형성하고 긍정적인 자기이미지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직무만족도는 직업을 가진 기혼 여성에게서 중요한 변인임을 시사한다. 반면, 개인이 지각하는 직업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만족도는 불안이나 우울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김은정 등, 1999; Griffin, Hogan, Lambert, Tucker-Gail, & Baker, 2010)들과 같이 본 연구결과에서도 직무만족도는 우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신에게 부여된 직업에 대해 만족하였을 때 우울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가 감소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기혼 여성의 심리적 변인 중 자아존중감은 양육스트레스에 부적 직접효과가 나타난 반면, 우울은 정적 직접효과, 자기효능감은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은 부부갈등에 부적 직접효과, 우울은 부부갈등에 정적 직접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심리적 특성이 양육스트레스, 부부갈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대체로 일치한다(신동주, 최현미, 2011; 이정윤, 장미경, 2008; Kuster et al., 2013). 본 연구결과는 무엇이든 성공적으로 수행해낼 수 있다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믿음과 자신 스스로 가치 있다는 생각은 주어진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마음의 여유를 제공하는 등 긍정적인 역할(황해익 등, 2013; Judge, Jackson, Shaw, Scott, & Rich, 2007; Schaubroeck, Jones, & Xie, 2001)을 하게 되며, 개인의 부정적인 심리상태가 양육의 질을 저하시키고 부부간의 갈등을 유발한다는 선행연구들(Bakker, Demerouti, & Dollard, 2008; Song et al., 2011)과 일치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직장생활을 하는 기혼 여성이 느끼는 부정적 정서는 가정에 전이효과(spill-over)를 야기해 양육의 질을 저하시킴과 동시에 부부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여성의 심리적 특성은 직무만족도가 양육스트레스와 부부갈등에 미치는 영향을 증폭시키거나 감소시키는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직무만족도는 자아존중감과 우울을 매개로 양육스트레스와 부부갈등을 낮추는 간접효과가 나타났다. 직무만족도는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부부갈등을 낮추는 간접효과는 나타난 반면, 직무만족도는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양육스트레스를 낮추는 간접효과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결혼만족도와 양육태도 및 양육스트레스 간의 관계에서 심리적 특성의 간접효과(서석원, 이대균, 2013; 최효식, 연은모, 윤영, 홍윤정, 2014)를 보고하고 있는 선행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구조모형의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본 연구결과는 기혼 여성이 가지는 자신의 능력과 가치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은 자신이 온전히 책임져야 하는 자녀에 대한 양육보다는 자신과 비슷한 능력을 가지고 같은 위치에서 함께 가치를 추구하며 가정을 유지해나가는 배우자와의 갈등에 더 큰 영향을 주는 변인임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제한점이 존재하며, 이에 기초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 결과는 영유아 자녀를 둔 기혼 여성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결과를 일반화해서 해석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다양한 연령의 자녀를 둔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추후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직무만족도와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매개변인으로 심리적 특성을 가정하였는데, 매개변인 또는 조절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다양한 변인을 고려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에서 확인한 직장을 가진 어머니의 직무만족도, 심리적 특성, 부부갈등, 양육스트레스 간의 선, 후 인과관계를 더욱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기회귀 교차지연모형(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s) 등을 활용하여 직무만족도, 심리적 특성, 양육스트레스, 부부갈등이 어떻게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동안의 직장생활을 하는 기혼 여성의 양육스트레스와 부부갈등과 관련된 많은 연구들은 주로 직장생활을 하지 않는 기혼 여성과 비교를 통해 취업여부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초점을 맞췄을 뿐 직장생활을 하는 여성들만을 대상으로 이들의 삶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직무만족도에 대해서 살피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 하지만 본 연구는 직장을 가진 기혼 여성의 양육스트레스와 부부갈등에 미치는 직무만족도와 심리적 변인에 대한 관계를 밝힘으로써 관련 연구 분야의 이론적 측면 확장뿐 아니라 적절한 중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실천적 함의를 가진다. 특히, 본 연구에서 확인된 직무만족도가 양육스트레스와 부부갈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직업을 가진 기혼 여성들이 자신의 직무에 보다 만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특히, 직무에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자신의 능력에 대해 긍정적인 믿음을 갖는 것은 직무로부터 받는 부정적인 정서를 양육스트레스에까지 전이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 참고 문헌

- 가영희 (2006). 성인의 직장-가정갈등이 영역별 만족도와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1(2), 163-186.
- 권미경 (2011). 영아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영향요인-어머니의 취업여부를 중심으로. **한국보육지원학회지**, 7(2), 19-41.

- 김기원, 도현심, 김상원, 이선희 (2010). 어머니의 취업 여부, 취업 관련 특성, 배우자의 지지 및 양육스트레스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31(5), 101-113.
- 김기현, 강희경 (1997). 양육스트레스 척도의 개발. **대한가정학회지**, 35(5), 141-150.
- 김선순 (2006). 여성공무원의 자녀양육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은정, 오경자, 하은혜 (1999). 기혼 여성의 우울 증상에 대한 취약성: 스트레스 경험 및 대처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4(1), 1-14.
- 김인숙, 김병숙 (2002). 직장여성의 경력개발 의식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7(2), 31-52.
- 김효정 (2011). 사무직 취업모의 직무 및 양육스트레스, 우울과 건강증진행위간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남주현 (2003). 영아기 자녀를 둔 취업모의 격리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노진아, 이숙 (2002). 자아존중감, 생활만족도 및 직업특성에 따른 취업모의 양육행동. **한국가정과학회지**, 6(1), 81-93.
- 서석원, 이대균 (2013). 어머니의 결혼만족도, 부부갈등 및 영아의 정서성 기질이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 우울의 매개효과. **유아교육연구**, 33(5), 279-298.
- 서주현, 김진경 (2012).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영유아보육학**, 73, 101-121.
- 신동주, 최현미 (2011). 부부간 친밀관계경험과 어머니의 자아존중감 및 유아의 자아존중감의 관계. **유아교육학논집**, 15(1), 301-324.
- 안지영 (2003). 유아기 자녀의 조기교육 실태와 어머니의 양육 신념, 양육 스트레스 및 성취 압력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1(11), 95-111.
- 양승주 (2005). 여성친화적 일자리 창출에 주력. **나라경제**, 16(9), 19-22.
- 유성경, 홍세희, 이아라 (2006). 남녀 학업 우수 청소년이 지각하는 진로장벽과 진로포부의 관계에서 학업 효능감의 매개모형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8(4), 837-851.
- 이규만, 김용훈 (2007). 기혼교사들의 직장-가정 갈등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교육행정학회**, 25(3), 219-241.
- 이윤주, 김진숙 (2012). 영유아기 자녀를 둔 기혼여성의 양육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 자아존중감 안정성의 조절효과와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3(5), 2229-2249.
- 이정윤, 장미경 (2008). 기혼여성의 부모역할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 부모역할 자긍심의 매개 및 중재효과. **상담학연구**, 9(2), 339-352.
- 이진희 (2011). 취업모의 직업만족도, 아버지의 양육참여도가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주영 (2013). 남편의 양육참여가 양육스트레스와 부부갈등을 매개로 취업모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구조적 분석. **육아정책연구**, 7(1), 106-126.
- 정현숙 (2004). 결혼 전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1), 91-101.
- 차삼숙, 신유림 (2005). 유아기 자녀를 둔 취업모의 양육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생활과학연구논집**, 25(1), 163-181.
- 최효식, 연은모, 윤영, 홍윤정 (2014).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른 결혼만족도와 양육태도 간의 관계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우울의 매개효과-. **한국영유아보육학**,

84, 57-84.

통계청 (2014). **성별 경제활동 인구 총괄 2014**.

허혜경, 김민정 (2012).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영아의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학회지**, 12(1), 95-110.

홍세희 (2000).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황해익, 탁정화, 홍성희 (2013). 유치원 교사의 회복탄력성, 교사효능감 및 직무만족도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학논집**, 17(3), 411-432.

Anderson, J. C., & Gerbing, D. W. (1988).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practice: A review and recommended two-step approach. *Psychological Bulletin*, 103(3), 411-423.

Bagozzi, R. P., & Yi, Y. (1988). On the evaluation of structural equation models. *Journal of the Academy of Marketing Science*, 16(1), 74-94.

Bakker, A. B., Demerouti, E., & Dollard, M. F. (2008). How job demands affect partners' experience of exhaustion: Integrating work-family conflict and crossover theory.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93(4), 901-911.

Bandura, A. (1986). The explanatory and predictive scope of self-efficacy theory.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4(3), 359-373.

Beck, A. T. (1967). *Depression: Clinical, experimental, and theoretical aspects*. New York: Harper and Row.

Birnbaum, J. A. (1975). Life patterns and self-esteem in gifted family oriented and career committed women. In M. S. Mednick, S. S. Tangri, & L. W. Hoffman (Eds.), *Women and achievement* (pp. 396-419). Washington, DC: Hemisphere.

Bodenmann, G., Ledermann, T., & Bradbury, T. N. (2007). Stress, sex, and satisfaction in marriage. *Personal Relationships*, 14(4), 551-569.

Bradley, D. E., & Roberts, J. A. (2004). Self-employment and job satisfaction: Investigating the role of self-efficacy, depression, and seniority.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42(1), 37-58.

Chau, P. (1996). An empirical investigation on factors affecting the acceptance of case by systems developers. *Information & Management*, 30(6), 269-280.

Chung, H. (2004). Application and revision of the 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 for use with Korean couples 1. *Psychological Reports*, 95(3), 1015-1022.

Cohany, S. R., & Sok, E. (2007). Trends in labor force participation of married mothers of infants. *Monthly Labor Review*, 130(2), 9-16.

Crouter, A. C., Bumpus, M. F., Maguire, M. C., & McHale, S. M. (1999). Linking parents' work pressure and adolescents' well-being: Insights into dynamics in dual-earner families. *Developmental Psychology*, 35(6), 1453-1461.

Demerouti, E., Bakker, A. B., & Bulters, A. J. (2004). The loss spiral of work pressure, work-home interference and exhaustion: Reciprocal relations in a three-wave study.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4(1), 131-149.

Demerouti, E., Bakker, A. B., & Schaufeli, W. B. (2005). Spillover and crossover of exhaustion



- and life satisfaction among dual-earner parent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7(2), 266-289.
- Ford, M. T., Heinen, B. A., & Langkamer, K. L. (2007). Work and family satisfaction and conflict: A meta-analysis of cross-domain relation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92(1), 57-80.
- Fornell, C., & Larcker, D. (1981). Evalua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unobservable variables and measurement error.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8(1), 39-50.
- Fraenkel, P., & Capstick, C. (2012). Contemporary two-parent families: Navigating work and family challenges. In F. Walsh (Ed.), *Normal family processes* (4th ed., pp. 78-101). New York: Guilford Press.
- Geurts, S. A. E., & Demerouti, E. (2003). Work/nonwork interface: A review of theories and findings. In M. Schabracq, J. Winnubst, & C. L. Cooper (Eds.), *The handbook of work and health psychology* (2nd ed., pp. 279-312). Chichester: Wiley.
- Goodman, W. B., & Crouter, A. C. (2009). Longitudinal associations between maternal work stress, negative work family spillover, and depressive symptoms. *Family Relations*, 58(3), 245-258.
- Griffin, M. L., Hogan, N. L., Lambert, E. G., Tucker-Gail, K. A., & Baker, D. N. (2010). Job involvement, job stress,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the burnout of correctional staff.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37(2), 239-255.
- Grzywacz, J. G., & Marks, N. F. (2000). Reconceptualizing the work-family interface: An ecological perspective on the correlates of positive and negative spillover between work and family.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Psychology*, 5(1), 111-126.
- Hair, J., Black, W., Babin, B., Anderson, R., & Tatham, R. (2006). *Multivariate data analysis* (6th ed.). Upper Saddle River, NJ: Pearson/Prentice Hall.
- Hoyle, R. H., & Panter, A. T. (1995). Writing about structural equation models. In R. H. Hoyle (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Concepts, issues, and applications* (pp. 158-176). Thousand Oaks, CA: Sage.
- Hu, L., & Bentler, P.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6(1), 1-55.
- Jackson, A. P. (2000). Maternal self-efficacy and children's influence on stress and parenting among single black mothers in poverty. *Journal of Family Issues*, 21(1), 3-16.
- Judge, T. A., & Bono, J. E. (2001). Relationship of core self-evaluations traits-self-esteem, generalized self-efficacy, locus of control, and emotional stability-with job satisfaction and job performance: A meta-analysi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6(1), 80-92.
- Judge, T. A., Jackson, C. L., Shaw, J. C., Scott, B. A., & Rich, B. L. (2007). Self-efficacy and work-related performance: The integral role of individual difference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92(1), 107-127.
- Kessler, R. C., Andrews, G., Colpe, L. J., Hiripi, E., Mroczek, D. K., Normand, S. L., Walters, E. E., & Zaslavsky, A. M. (2002). Short screening scales to monitor population prevalences

- and trends in non-specific psychological distress. *Psychological Medicine*, 32(6), 959-976.
- Kim, J. L. S., & Ling, C. S. (2001). Work-family conflict of women entrepreneurs in Singapore. *Women in Management Review*, 16(5), 204-221.
- Korman, A. K. (1970). Toward an hypothesis of work behavior.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54(1), 31-41.
- Kuhn, J. C., & Carter, A. S. (2006). Maternal self-efficacy and associated parenting cognitions among mothers of children with autism.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76(4), 564-575.
- Kuster, F., Orth, U., & Meier, L. L. (2013). High self-esteem prospectively predicts better work conditions and outcomes. *Social Psychological and Personality Science*, 4(6), 668-675.
- Little, T., Cunningham, W., Shahar, G., & Widaman, K. (2002). To parcel or not to parcel: Exploring the question, weighing the merit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9(2), 151-173.
- Markman, H., Stanley, S., & Blumberg, S. (1994). *Fighting for your marriage*. San Francisco, CA: Jossey-Bass Publishers.
- Martins, L. L., Eddleston, K. A., & Veiga, J. F. (2002). Moderator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work-family conflict and career satisfaction.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45(2), 399-409.
- McBride, B. A., Schoppe, S. J., & Rane, T. R. (2002). Child characteristics, parenting stress, and parental involvement: Fathers versus mother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4(4), 998-1011.
- Motowidlo, S. J., & Van Scotter, J. R. (1994). Evidence that task performance should be distinguished from contextual performance.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9(4), 475-480.
- Mulsow, M., Caldera, Y. M., Pursley, M., Reifman, A., & Huston, A. C. (2002). Multilevel factors influencing maternal stress during the first three year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4(4), 944-956.
- Nelson, S. K., & Lyubomirsky, S. (in press). Juggling family and career: Parents' pathways to a balanced and happy life. In K. Page, R. Burke, & C. Cooper (Eds.), *Flourishing in life, work, and careers*. London, UK: Edward Elgar.
- Obidoo, C., Reeves, D., Warren, N., Reisine, S., & Cherniack, M. (2011). Depression and work family conflict among corrections officers. *Journal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Medicine*, 53(11), 1294-1301.
- Pearlin, L. I., Lieberman, M. A., Menaghan, E. G., & Mullan, J. T. (1981). The stress proces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2(4), 337-356.
- Quick, J. C., & Tetrick, L. E. (2003). *Handbook of occupational health psychology*.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Raikes, H. A., & Thompson, R. A. (2005). Efficacy and social support as predictors of parenting stress among families in poverty. *Infant Mental Health Journal*, 26(3), 177-190.
- Respler-Herman, M., Mowder, B. A., Yasik, A. E., & Shamah, R. (2012). Parenting beliefs, parental stress, and social support relationships.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1(2), 190-198.

- Rosenberg, M. (1986). Self-concept from middle childhood through adolescence. *Psychological Perspectives on the Self*, 3(1), 107-136.
- Russell, D., Kahn, J., Spoth, R., & Altmaier, E. (1998). Analyzing data from experimental studies: A latent variabl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pproach.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5(1), 18-29.
- Salmela-Aro, K., Nurmi, J. E., Saisto, T., & Halmesmaki, E. (2010). Spousal support for personal goals and relationship satisfaction among women during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34(3), 229-237.
- Schabracq, M., Winnubst, J., & Cooper, C. L. (2003). *The handbook of work and health psychology* (2nd ed). Chichester: Wiley.
- Schaubroeck, J., Jones, J. R., & Xie, J. L. (2001). Individual differences in utilizing control to cope with job demands: Effects on susceptibility to infectious disease.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6(2), 265-278.
- Shin, D. C., & Johnson, D. M. (1978). Avowed happiness as an overall assessment of the quality of life. *Social Indicators Research*, 5, 475-492.
- Song, Z., Foo, M. D., Uy, M. A., & Sun, S. (2011). Unraveling the daily stress crossover between unemployed individuals and their employed spouse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96(1), 151-168.
- Speight, N. P. (2010).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fficacy, resilience and academic achievement among african-american urban adolescent students*. Howard University.
- Taylor, S., & Todd, P. (1995). Understanding information technology use: A test of competing models. *Information System Research*, 6(2), 144-176.
- Thompson, C. A., & Prottas, D. J. (2006). Relationship among organizational family support, job autonomy, perceived control, and employee wellbeing.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Psychology*, 11(1), 100-118.
- Wang, S. W., Repetti, R. L., & Campos, B. (2011). Job stress and family social behavior: The moderating role of neuroticism.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Psychology*, 16(4), 441-456.
- West, S., Finch, J., & Curran, P. (1995).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non-normal variables: Problems and remedies*. CA: Sage Publications.
- Westman, M. (2001). Stress and strain crossover. *Human Relations*, 54(6), 717-751.
- Williams, T. M., Joy, L. A., Travis, L., Gotowiec, A., Blum-Steele, M., Aiken, L. S., Painter, S. L., & Davidson, S. M. (1987). Transition to motherhood: A longitudinal study. *Infant Mental Health Journal*, 8(3), 251-265.

##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explore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an infant-mother's job satisfaction, psychological features, parenting stress and marital conflict through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pecifically, we tried to identify influences of an infant-mother's job satisfaction on parenting stress and marital conflict and demonstrated how psychological features (self-efficacy, self-esteem, and depression) were mediated by these influences by using a sample of 444 Korean infant-mothers with jobs from the 3rd year of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with AMOS 20.0. First, the results demonstrated that job satisfaction of an infant-mother positively related to their self-efficacy and self-esteem whereas negatively related to depression among psychological features. Furthermore, job satisfaction of an infant-mother showed negative relationships with parenting stress and marital conflict. Second, an infant-mother's job satisfaction did predict marital conflict, but not parenting stress. However, these job satisfactions were mediated by an infant-mother's psychological factors. Findings were discussed with regard to the relationship between an infant-mother's job satisfaction, parenting stress, and marital conflict in the family counseling implications.

▶ *Key Words* : *Infant-Mother, Job Satisfaction, Psychological Features, Parenting Stress, Marital Conflict*

논문투고	2014. 08. 15.
수정원고접수	2014. 11. 23.
최종게재결정	2014. 12. 06.